

불계 물든 가을산사... "번뇌도 탄다"



설악산 백담계곡 '단풍세상'

설악산은 얼마나 독특한 아름다움을 품었지만, 그중에서도 가을 단풍은 첫 손가락에 꼽힌다. 대청봉에서부터 물들기 시작한 단풍은 지금, 중청 소청을 지나 계곡을 따라 내려오고 있다.

많은 불자들은 백담계곡 코스를 즐겨 찾는다. 수렴동, 가야동, 용아장성동의 화려함이 한눈에 들어오고 죽순처럼 구름을 들고 솟아있는 기암, 수정처럼 맑은 물이 구름을 안고 흐르는 계곡도 산행의 즐거움을 더해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자들이 이 코스를 즐겨 찾는 가장 큰 이유는 적멸보궁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15일 찾은 백담계곡은 월요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찰이나 수행단체에서 온 탐방객들로 가득했다. 이들의 산행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백담사나 영사암에서 1박을 하고 봉정암에 오르는 것과, 오세암에서 1박을 하고 봉정암에 오르는 것, 그리고 봉정암에서 1박을 하고 오세암과 영사암을 거쳐 백담사로 내려오는 것이다.

기자는 오세암에서 1박을 하고 봉정암을 거쳐 백담사로 다시 내려오는 코스를 택했다. 백담사에서 오세암에 이르는 길은 황홀했다. 3시간 여 동안 이르는 등산로 곳곳은 오색 단풍이 터널을 이루고, 떨어진 낙엽은 가을 물감을 흩뿌려 놓은 듯 색의 마을을 연출한다. 하지만 기도가 목적인 불자들에게 단풍삼매에 빠져드는 것은 잠시, 영사암을 지나면서부터 고행길(가이)이 이어진다. 땅이 가슴에 닿을 듯한 가파른 언덕을 오르는 수고를 여러 번 반복해야 오세암에 도착할 수 있다.

오세암 주지 일음 스님은 "3시간 여 동안 걷는 것만으로 기도는 다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한다. 그 만큼 오세암을 찾는 일이 쉽지 않다는 얘기다. '내려가자' '아니야, 조금 더 올라가자' 자신과 수없이 싸우고, 그 싸움에서 단 한 순간도 물러가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주지 스님은 이곳을 찾는 불자들로부터 오히려 신심을 배운다고 말한다. 며칠 전에는 92살의 노보살이 고무신 차림에 공양물(밥)까지 짊어지고 오세암을 찾아왔다고 한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오세암 같은 절이니 가능한 일이라.

극한의 육체적 괴로움을 극복하고 도착한 오세암은 선뜻 편안한 심터를 제공하지도 않는다. 단풍의 계절인 요즘은 더욱 그렇다. 2백5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도량에 하루 평균 두 세대의 기도객들이 찾았기 때문이다. 특히 2일부터 12일 사이는 1년 중 가장 많다. 하루에 800여명에 이를 때도 있다. 오세암은 보통 지일자에 한해 10시 30분부터 철야정진을 하는데, 이 때만큼은 잠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든 졸든 철야정진을 할 수밖에 없다.

잠자리뿐만 아니라 부족한 것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 그래서인지 이곳을 찾는 불자들은 물 한 모금 유지한 조카 헛되게 사용하지 않는다.

오세암·봉정암
철야정진 불자
매일 수백여명
누구를 만나든
"성불합시다"
웃는 얼굴 합장



◀관음봉, 동자봉이 병풍처럼 두른 곳에 자리한 오세암. 만경대에 오르면 오세암과 내설악의 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오세암에서 봉정암으로 이어지는 길에서 만나는 불자들은 모두 "성불합시다"며 합장인사를 한다.

오세암 법당 앞에 서면 뒤로는 관음봉과 동자봉이, 오른쪽으로는 공룡봉이 울려다 보인다. 특히 암자에서 영사암 쪽으로 5분을 가면 작은 언덕을 하나 넘게 되는데, 그 언덕 위에서 왼쪽의 봉선 골짜기로 가면 내설악의 꽃이라 부르는 만경대에 닿는다. 이곳에 올라서면 대청봉을 중심으로 공룡봉, 용아동, 서복봉을 아우르는 전망이 펼쳐진다. 대청봉에서 인제 쪽으로 흘러내린 내설악의 비경과 오세암의 절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만경대다.

밤새워 기도를 마친 불자들은 대부분 여기에서 하산하지 않고 다시 봉정암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오세암 뒤에서 봉정암으로 이어지는 길은 일명 '불자의 길'이다. 이곳은 오세암에서 기도를 마친 불자들과, 봉정암에서 기도를 마친 불자들이 이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스키름 없이 "성불합시다"며 합장인사를 나눈다.

오세암은 25일 오세동자 점안식을 갖는 한편 11월 1일부터 5일까지 4박5일 동안 특별기도법회를 봉행한다. 이것이 올해 오세암의 마지막 기도법회다. 눈이 내리는 11월 중순부터 내년 4월까지의 출입이 통제될 뿐 아니라 눈으로 인해 고립되기 때문이다.

올 단풍은 유난히 곱다. 등산객들은 불타는 가을 산이라며 단풍놀이만 즐기지만 불자들은 거기서 머물지 않는다. 일을 떨고내고 에너지를 비축하는 나무에게서 삶의 지혜를 배우고, 수행과 기도를 통해 내면의 자유를 획득한다.

글=김종근 기자 gamar@buddhap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a.com

단풍길 따라 부처님 만나자

법주사·백암사 등 행사 풍성

설악에서 시작한 단풍이 남쪽을 향하고 있다. 올 단풍은 지난해에 비해 3-4일 늦었지만 날이 맑고 일교차가 커 어느 해 보다 아름다울 것이라고 한다.

이 가을, 곁에 물들어 가는 단풍길 따라 부처님 만나러 떠나 보자. 특히 이번 가을에는 많은 사찰에서 법회와 문화제가 펼쳐진다.



10승지 가운데 하나이며 빼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가야산은 24일 단풍이 절정에 이른다. 여러 산 내 암자마다 풍성한 행사가 열린다. 해인사에서는 25일 마애불 헌다식을 비롯하여 29일 영가천도, 30일과 31일 보살계, 31일 가사불사 회향식이 봉행된다. 또한 백련암은 29일부터 11월 5일까지 성철스님 8주기 3000배 참회법회를, 원당암은 25일과 11월 3일 율령정진 참선법회를 연다. 길상암은 28일부터 30일까지 가을기도에 들어가

고, 회향대는 15일부터 하루에 500배씩 하는 만배 기도 입제식을 갖는다.

4계절의 변화에 따라 절경을 이루는 속리산에는 쌍사자석등(국보 5호), 팔상전(국보 55호) 등 많은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법주사가 있다. 단풍이 절정에 이르는 28일을 전후로 축제가 열린다. 20일부터 21일까지 보존군 주관으로 속리축전이, 21일과 28일 그리고 11월 4일에는 속리산 자생 야생화 꽃제를 무료로 나눠주는 행사가 마련된다. 법주사는 보살계(21일) 수계산림을 봉행한다.

가을=내장'이라 할 정도로 가을 단풍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내장산이다. 이곳은 11월 5일 경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정음사에서 주관하는 단풍축제가 열린다. 특히 인근에 위치한 백암사는 장성군과 공동으로 백암단풍축제를 26일부터 28일까지 개최한다. 이 기간에는 전국단풍등산대회, 그린음악회, 노래자랑 등 20여행사가 진행된다.

내장산과 같은 시기에 가장 화려한 단풍을 볼 수 있는 계룡산의 사찰에서도 뜻 깊은 행사가 마련된다. 신원사에서는 신신제가 11월 1일 개최되며, 갑사는 장건 1581주년 개산대제(11월 3일), 괘불이운식 및 영산재(11월 4일)를 봉행한다.

지리산 화엄사는 25일부터 27일까지 화엄석경 정대불사 및 보살계 수계산림을 실시한다. 서울의 '녹색하파'로 2천만 시민들의 휴식처 역할을 하고 있는 북한산은 11월 4일경 단풍이 절정에 이를 전망이다. 이 시기에 도선선사 법주사는 보살계(21일) 수계산림을 봉행한다. 가을=내장'이라 할 정도로 가을 단풍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내장산이다. 이곳은 11월 5일 경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정음사에서 주관하는 단풍축제가 열린다. 특히 인근에 위치한 백암사는 장성군과 공동으로 백암단풍축제를 26일부터 28일까지 개최한다. 이 기간에는 전국단풍등산대회, 그린음악회, 노래자랑 등 20여행사가 진행된다.

내장산과 같은 시기에 가장 화려한 단풍을 볼 수 있는 계룡산의 사찰에서도 뜻 깊은 행사가 마련된다. 신원사에서는 신신제가 11월 1일 개최되며, 갑사는 장건 1581주년 개산대제(11월 3일), 괘불이운식 및 영산재(11월 4일)를 봉행한다.

지리산 화엄사는 25일부터 27일까지 화엄석경 정대불사 및 보살계 수계산림을 실시한다. 서울의 '녹색하파'로 2천만 시민들의 휴식처 역할을 하고 있는 북한산은 11월 4일경 단풍이 절정에 이를 전망이다. 이 시기에 도선선사 법주사는 보살계(21일) 수계산림을 봉행한다.

가을=내장'이라 할 정도로 가을 단풍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내장산이다. 이곳은 11월 5일 경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정음사에서 주관하는 단풍축제가 열린다. 특히 인근에 위치한 백암사는 장성군과 공동으로 백암단풍축제를 26일부터 28일까지 개최한다. 이 기간에는 전국단풍등산대회, 그린음악회, 노래자랑 등 20여행사가 진행된다.

오세암과 오세동자

오세암(五歲庵)은 신라 선덕여왕 12년(643) 자장율사가 창건하여 관음암이라 불렀고, 조선 인조 21년(1643) 설정 스님이 중건하면서부터 오세암이라 부르게 되었다. 그 후 고종 25년(1888) 백하 스님에 의해 중건되었으나 6·25전쟁 중 소실된 뒤 1990년대 들어 중흥불사를 시작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설정 스님이 관음암을 중건하면서 이름을 오세암으로 바꾸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한다. 설정 스님이 다섯 살된 조카와 함께 관음암에 머물다가 겨울이 막 시작될

신라때 자장율사 창건

25일 동자상 봉안법회

어느 날 월동준비 관계로 양양 물치 장터로 떠나게 되었다. 이를 동안 혼자 있을 어린 조카를 위해 며칠 밤을 지어 놓았지만 밤새 내린 폭설로 겨울이 끝날 때까지 관음암으로 돌아올 수 없었다.

이듬해 봄 설정 스님이 돌아와 보니 죽은 줄 알았던 조카가 목탁을 치면서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있었다. 관세음보살의 가피에 감동한 스님은 다섯 살의

동자가 관세음보살의 위신력으로 살아난 것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관음암을 중건하고 오세암으로 고쳐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노산 이은상의 <설악행각>에는 이 암자에 머물렀던 매일당 김시습의 별호가 '오세신동'이었고, 그가 머문 후 150년이 지난 뒤부터 오세암이라 불렀던 것으로 보아 매일당 김시습의 별호 때문에 관음암에서 오세암으로 이름이 바뀌게 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기록도 있다.

오세암은 15년 전에 봉안된 오세동자상의 법신이 상해 25일 새로 동자상을 봉안하는 법회를 가진다.



◀25일 새로 봉안하는 오세동자상.